

# 舞 朝鮮 무용 통신

発行 : 在日本朝鮮文学芸術家同盟中央舞踊部 〒112-8603 東京都文京区白山 4-33-14 ☎03-3817-0431

제 8 호 (루게 제 8 호)

주체 90 (2001) 년 12월 5일 (수)

## 문예동 무용경연대회를 성과리에 맞이하자 !

지난 10월 문예동중앙 무용부 부위원회에서는 문예동무용부 맹원들과 무용애호가들의 요구와 기대가 많은 《재일본조선문학예술가동맹 무용경연대회》 진행에 대하여 합의를 보고 다음과 같이 토의결정을 하였다.

### 1. 시일 및 장소

- 경연 : 2002년 6월 22일 (토) 東京、サンパール荒川
- 시상 : 2002년 6월 23일 (일) 조선출판회관

### 2. 경연종목, 참가인원 및 출연시간

	부문	인원	시간	
			기성	창작
1	독무	1명	시간제한 없음	5분 이내
2	중무	2-5명		6분 이내
3	군무	6명 이상		7분 이내
4	기본동작	8명	삼동동어깨춤 1,2 동작	

### 3. 시상

- 부문별로 1, 2, 3등에 대하여 표창하며 단체상은 4개부문의 성적을 합하여 가장 높은 성적을 올린 지부에 표창장과 부상을 수여한다.

**구체적인 요강은 각 문예동지부 무용부에 문의할 것이다.**

# 동일본지방 서일본지방 제1차 무용지도원강습 진행

지난 9월 23,24 일 조선대학교에서 동일본지방(문예동 도쿄, 니시도쿄, 가나가와)강습을 진행하였으며 9월 8, 9일 오사카부본부에서 서일본지방(문예동 오사카, 호고, 도카이, 교토, 후쿠오카)강습이 진행되었다. 동일본지방에서는 10명의 각 지역 무용지도원들이, 서일본지방에서는 21명의 각 지역 무용지도원들이 참가하였다.

강습에서는 조선무용기본동작 1, 2, 3 동작과 룰동춤, 그리고 조선무용기초동작 제2 단계를 복습하였으며 삼동동어깨춤의 제2 동작과 일부 수정된 조선무용기초동작(제2 단계 팔 휘감는 동작중 두 팔틀어 휘감기)을 배웠다.

강습참가자들은 조국선생님을 모신 여름강습이라 진행된 무용강습이어서 누구나 앞을 다투며 열성껏 강습을 받으며 많은 땀을 흘렸다.

참가자들은 지난 강습에서 배운것들이 무의식간에 부정확하게 변한 현상을 뉘우치며 기초련습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고 계속 정확히 배워나갈 결의를 다지었다.

## 문예일군대표단 무용강습에 참가하여

◆ 2001년 8월 강습참가자들의 감상문중에서 ◆

강사선생님께서 지도해주는 한마디한마디가 쑥쑥 머리에 들어가 이해하지 못한 흥이나 억양이 잡혀져 하루하루 훈련이 재미났습니다. 강습에 참가하는 젊은 동무들의 모습이 믿음직하게 보여 선배로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교토문예동 리 옥 민

♡축하! 2001년 11월에 결혼하여 현재 도쿄에 거주합니다. ♡

조국에 와서 전습을 받아보니 자기가 상상한 련습보다 몇 배나 피곤해서 놀랐습니다. 련습을 통해서 자기 버릇이 아주 강하다는것을 알게 되었으며 더 많은 련습을 통해서 하나씩 버릇을 고쳐나가자고 생각했습니다. 여러 지방의 문예동맹원들과 함께 땀을 흘린 나날을 잊지 말고 앞으로 계속 무용을 배워나가겠습니다.

도쿄문예동 손 흥 미

# 문예동도교지부 무용부 정기모임

## 문예동도교지부 무용부 정기모임

지난 11월 17일(토)에 도교도본부 강당에서 문예동도교 무용부 정기모임을 조직진행하였다. 모임에서는

문예동 도교 무용부 15기 부위원인 김선희부장, 계영순부부장, 김수란부부장, 고정순도교가무단책임자, 윤혜영기따간또가무단책임자, 리령화청년조책임자, 오정희교원책임자들이 소개되었으며 각자 앞으로의 사업과 포부에 대하여 결의하였다.

새 부장인 김선희부장은 첫째로 폭넓은 사업을 통해 대상을 찾아내며 무용부의 대렬을 확대해나가는것, 둘째로 학교 무용교원을 대상으로 한 교원조사업을 활성화하는것, 셋째로 동포들에게 민족심을 심어주는 각종 공연사업과 지도사업, 조국통일과 조일친선을 위한 각종 대외사업을 적극 벌려 나가는것을 15기의 무용부 사업방향으로 제기하였다.

### 문예동 각 지부 무용부 선전부장

도교지부	리 령 화	교또지부	전 리 화
니시도교지부	장 혜 순	오사까지부	정 미 화
가나가와지부	윤 수 지	효고지부	김 행 숙
도까이지부	륙 미 화	후꾸오까지부	배 영 해

12월 21일  
니아가다출항

## 문예동맹원기량전습조국방문단이 출발한다!

문예동맹원기량전습조국방문단이 12월 21일(금)에 니아가다항을 떠난다. 약 20일의 강습기간에 바레트와 조선무용기초, 무용소품을 배우게 된다. 1월 12일에 일본에 돌아올 예정이다. 여기에 문예동맹원기량전습단 단원들을 지도해주시는 조국선생님을 소개한다.



김 은 하 선생님  
1957년 6월 14일생  
조선예술교류협회  
조선무용강사



오 영 옥 선생님  
1966년 3월 28일생  
조선예술교류협회  
바레트강사

## 현재지식

### 로동계급의 패기와 열정을 담은 약동적인 무용 (요지)

— 독무 《직포공의 마음》과 《검차원의 영예》에 대하여—

#### 주 문 결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였다.

《최근 우리 나라의 경제가 빨리 발전하는데 따라 수송의 긴장성이 조성되고있습니다. 오늘 수송의 긴장성을 푸는것은 사회주의 경제건설을 힘있게 다그치는데서 매우 중요한 문제로 나서고있습니다.》

독무 《검차원의 영예》는 빨리 늘어나는 수송수요를 원만히 보장할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심장으로 받든 한 검차원처녀가 수송전선에서 어떻게 뜨거운 충성심을 발휘하여 자기의 혁명초소를 주인답게 지키고있는가에 대한 간단한 이야기를 담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 바치는 무한한 헌신성과 충성의 한마음으로 재빠른 일손을 이악하게 늘려가는 검차원처녀의 형상을 통하여 나라의 동맥이며 인민경제의 선행관인 철도운수를 믿음직하게 떠메고 나가는 수송전사들의 숭고한 내면세계를 보여주면서 작품은 이러한 충실한 수송전사들의 불면불휴의 투쟁이 있음으로 하여 철도수송사업은 속도전의 불바람속에서 원만히 진행되고 있다는 사상을 보여주고 있다.

무용은 검차원처녀가 기적소리높이 울리며 역으로 들어오는 렬차를 맞이하여 점점을 하는 생활로부터 시작된다. 마치를 힘있게 들어준 검차원처녀는 날파람있게 뛰여가 박력있게 마치를 두드리며 뜨거운 정성을 가지고 점점을 한다. 렬차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 검차원처녀가 마치를 휘두르자 렬차는 힘찬 기적소리를 길게 울리며 떠나간다. 철도수송의 초병된 궁지드높이 떠나는 렬차를 바라보는 검차원처녀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부르시는 한길우에서 언제나 충성의 마음 붉게 붉게 꽃피우리라 굳게 결의다진다.

이것이 무용 《직포공의 마음》과 《검차원의 영예》의 이야기줄거리이다.

이처럼 이 무용은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무한한 충성심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자기의 혁명초소를 굳건히 지키고있는 우리 로동계급의 믿음직한 모습을 알기쉽게 잘 보여주고있다.

#### 무용자료안내

〈조선민속무용기본동작 1〉  
비디오테이프 ¥3,500-  
음악테이프 ¥1,500-

〈조선무용기초동작 1,2 단계〉  
비디오테이프 ¥3,500-  
음악테이프 ¥1,500-

〈세월과 더불어 및 무용곡〉  
CD판음악 ¥4,500-